

베드로전서

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(220824)

1. “그러므로”(οὖν)—새로운 문단의 시작(2:1)

- 1.1. ()의 접속사이며, 동시에 새로운 문단의 시작을 알림
- 1.2. 이전 단락에 대한 요약
 - 1.2.1. “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가지게 되었으니”
 - 1.2.2. “그 결과 저 하늘의 본향을 향해 살아가게 되었고”
 - 1.2.3. “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었으니”
 - 1.2.4. “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믿고, 소망하며,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으니”

2. (그러므로)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(2:2)!

- 2.1. 소극적으로 “()”(ἀποθέμενοι)
 - 2.1.1. 모든 악독, 기만(속임), 외식(위선), 시기, 비방의 말을 버림
 - 2.1.2. 일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도 부정적인 덕목들
- 2.2. 적극적으로 “()”(ἐπιποθήσατε)
 - 2.2.1. 갓난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젖을 찾듯이!
 - 2.2.2. 성도들은 신령한 젖을 찾게 되어 있음
- 2.3. 두 경우 모두 부정과거 시제의 사용
 - 2.3.1. 단회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시제
 - 2.3.2. 그러므로 인식, 결단, 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!
 - 2.3.3. 그러한 ()이니, 그렇게 ()하고, 일단 ()해야 한다는 뜻!
- 2.4. 성도들은 이미 주의 선하심의 맛을 본 자들(2:3)
 - 2.4.1. 제1 조건문: “~맛보았으면 그리하라”
 - 2.4.2. 맛보았다는 것을 사실로 전제함

3. 신령한 젖이란 무엇인가?

- 3.1. “하나님의 ()”—가장 일반적인 이해
 - 3.1.1. 신령한(λογικός)이라는 표현이 말씀(λόγος)과 유사한 발음
 - A. 일종의 언어유희
 - B. 신령한 젖 = ()이라는 젖
 - 3.1.2. 신약성경의 다른 저자들이 젖을 ()과 관련지어 표현(고전 3:2; 히 5:12)
- 3.2. 가능한 다른 해석
 - 3.2.1. 본문의 문맥: “모든 불의한 일들을 버리고,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”
 - 3.2.2. 신령한 젖은 불의한 일들에 대한 대조적 의미를 가짐

3.2.3. 성도가 살아가야 할 합당한 혹은 거룩한 ()을 의미

3.3. 두 가지 해석 중 하나를 취할 필요는 없음

3.3.1. 본문의 취지: 성도 안에 허락된 ()은 구원의 날까지 보존되어야 함(2:2)

3.3.2. 생명을 활기 있게 유지해 가는 방법은 거룩한 삶을 향한 갈망

3.3.3. 이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룩의 원천

4. 거룩한 성전과 제사(2:4-10)

4.1. 자연스럽게 젖의 비유는 ()의 비유로 확장

4.1.1. 히브리 사고에서 집은 자연스럽게 가정과 자녀 양육과 연결

4.1.2.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영(막 12:10; 시 118:22)

A. 사람들에게 버림 받은 "산 돌" -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

B. 세상으로부터 버림 받은 "산 돌들"이 연결되어 성전을 이루게 됨(2:5)

C. 이들은 결코 수치를 당하게 되지 않음(2:6; 사 28:16)

D.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됨 → 심판!

4.2. 성전의 그림은 ()의 그림으로 확장

4.2.1. 성도의 정체성

A. 이 땅에서는 외면을 당하고, 핍박을 당함

B. 하나님께는 "택하신 족속", "왕 같은 제사장", "거룩한 나라", "하나님의 특별한 소유"(2:9)

4.2.2. 제사장으로서의 사명

A.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

B. "신령한 제사"를 드림으로써—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(마 5:16)

C. 왜 이런 사명을 받게 되었는가? → "하나님의 ()"(2:10; 호 2:23)